국내
마감시황

2026.4.2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중동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WTI 유가 상승
반복되는 노이즈에 증시는 견조한 흐름 지속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219.09pt (+0.44%)	1,174.85pt (+0.41%)	935.75pt (+0.4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1.80 원 (+11.8 원)	3.6800% (-3.7bp)	7,123.75pt (-0.5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774 억	+1,623 억	+4,090 억
외국인	-1,629 억	+188 억	+657 억
기관	+1,814 억	-1,651 억	-4,94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비판하며 해협을 다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이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화물선을 나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WTI 유가는 약 6% 상승했으나, 시장은 반복되는 노이즈에 내성을 확보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날 KOSPI는 0.44%, KOSDAQ은 0.41%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2.3조원, KOSDAQ은 약 14.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천억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건설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동판적층판(CCL)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ESS 성장세와 수주 기대감에 2차전지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전쟁 노이즈가 재부각되면서 방산주가 반등했습니다. 반면, 엔터, 건설, 자동차, S/W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두산(+5.79%), 삼성SDI(+4.87%), SK하이닉스(+3.37%)가 올랐고, 하이브(-2.86%), 카카오(-2.30%), 현대차(-2.04%)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